번역학연구
2016년 봄 제17권1호

번역 보편소들의 상호 의존성*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어떤 텍스트가 원문이 아닌 번역문인 관계로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을 번역 보편소라고 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단순화와 명시화, 규범화, 상호합치 등이 번역 보편소의 목록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처음 세 가지는 비번역문과 비교한 번역문의 특징이고, 마지막 하나는 번역문들 사이에 보이는 특징이다.[1)]

단순화란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간소화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으로 통사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휘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주된 양상은 어휘적 다양성과 정보량의 감소에 있다. 이를 테면 고

* 본고는 2014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1) 내용이 한국어의 이유, 원인 구문에 한정된 단어족에 대한 조사이므로 '한국어의 이유, 원인 구문을 대상으로' 정도의 부제를 붙이는 것이 실제 내용에 근접할 것이다(익명의 심사자 지적). 다만 연구 과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후 변경이 어려웠다.

www.kci.go.kr

빈도 단어의 출현 비율이 높아서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자의 특징이고, 문법 기능어에 비해 실질 내용어의 출현 비율이 낮아서 정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후자의 특징이다. 명시화란 목표언어 독자의 가독성 증대를 위해 원천언어에서 암시적이지만(implicit) 문맥이나 발화 상황으로부터 생각해낼 수 있는 정보 내용을 목표언어에 분명하게 드러내(explicit) 표현하는 특징을 가리킨다. 이러한 명시화의 결과로 번역문에는 접속어나 양화사 등 문법 장치가 늘어나고, 추가 정보를 덧붙이거나 대명사 등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2] 규범화란 원전에 나타난 텍스트 고유의 특징을 목표언어의 텍스트 규범에 맞게 조절하는 특징을 가리킨다. 예컨대 불완전한 문장들이 완전한 문장들로 바뀌고, 복잡하거나 특이한 문장 구조들은 평이한 것으로 교체된다. 상호합치란 말 그대로 번역문들이 서로 간에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인데, 주로 어휘 항목 대 실제 실현 횟수 비율과 어휘 밀도, 문장 길이 등에서 번역문들이 평균값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안동환 역 2008: 53-102).

그런데 이들 네 가지 번역 보편소는 제각기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김혜영 2009:29-30). 예컨대 고빈도 어휘의 사용으로 인한 어휘적 다양성의 감소, 즉 단순화는 번역문들 상호 간에 어휘적 획일성을 낳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호합치의 특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목표언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접속어 등을 첨가하는 선택적 명시화는 문법 기능어 등의 사용 빈도를 높이는 단순화로 이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번역 보편소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 대략 “단순화와 명시화 및 상호합치의 정도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정도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3]

---

2) 명시화는 크게 원전 텍스트 독자들과 목표 텍스트 독자들의 지식 간극을 메우려는 선택적 명시화와, 양 언어의 통사 구조 차이를 극복하려는 의무적(구조적) 명시화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 화용적 명시화를 명시화의 유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명시화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김순영(2005)를 참고할 수 있다.

3) 김혜영(2009:29-30)에 따르면 규범화는 단순화와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단순화에서 어휘적 다양성이 낮은 것을 규범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착어의 규범에 맞추어서(규범화), 자연스럽고 잘 읽히는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단순화와 명시화 및 상호합치의 보편소들에 대해서만 연관성을 논의했다.

www.kci.go.kr

본 연구는 말뭉치를 활용한 계량화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 보편소들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가설>의 성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번역 보편소들의 상호 관계에 관한 가설의 성립 여부를 논의하려면, 실제 번역문과 비번역문으로 구축한 일정 규모의 말뭉치가 필요하다. 실제 말뭉치를 조사해야만 번역 보편소들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 계량적 경향을 파악하여 가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에 활용하는 텍스트의 말뭉치 규모가 5만 어절로 비교적 소규모인 관계로 현재의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경향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보다 확실한 가설의 검증은 정밀하게 설계된 대규모 코퍼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4)]

2. 연구 범위와 방법

2.1 가설의 수립

앞서 우리는 번역 보편소들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논의가 본고의 연구 목표임을 밝힌 바 있다. 개략적으로 언급한 <가설>을 좀더 구체화해 보자. 위의 <가설>에서 언급한 번역 보편소는 단순화와 명시화 및 상호합치의 세 가지이다. 위의 <가설>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명제의 결합형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가설 1> 번역문은 비번역문과 비교해서 어휘의 단순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명시화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가설 2> 번역문들 상호 간에는 어휘적 분포가 유사한 상호합치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단순화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

4) 번역자 개인의 문체적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이나 번역자의 수효가 적고 장르가 다양하지 못해서 자료의 일반성이 떨어진다는 점(익명의 심사자 지적)은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통계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다만 본 연구와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수효가 적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휘적 다양성의 제한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항목이어서 빈도수의 점검만으로 그 과정을 대신했다. 현재의 필자는 초보적 검증 절차만을 거친 경향성의 확인이라는 수준에서 만족하고자 한다.

www.kci.go.kr

<가설 3> 단순화를 매개로 하면 명시화와 상호합치 경향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번역문에서는 어휘(형태)의 다양성이 제한되는데, 어휘의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것은 어휘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사용된 어휘 항목의 수가 적어서 어휘가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휘 항목의 수가 적은 것은 특정 영역에서 고빈도 어휘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때 고빈도 어휘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명시화[5]의 방향성에 주목한다. 즉, 명시화가 특정한 고빈도 어휘 쪽으로 일어나고 그와 같은 명시화의 결과로 고빈도 어휘의 출현이 더욱 빈번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가설 1의 검증).

번역문들은 비번역문들과 비교하여 다양한 언어적 특성에 관해 서로 간에 유사성을 보인다. 특정한 언어 특성을 두고 번역문과 비번역문 말뭉치를 조사해서 비교해보면 번역문들 사이의 상호합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단순화에서 찾고자 한다. 즉, 어휘적 다양성의 제한이 번역문들 사이의 상호합치 경향을 낳았다고 보는 것이다(가설 2의 검증)

<가설 1>과 <가설 2>가 입증되면, 논리적 연관관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명시화와 상호합치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특정 방향으로 명시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번역문들 사이의 상호합치 정도는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이다(가설 3의 검증).

2.2 검증 방법과 자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어의 언어 특징은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구문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어에서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 곧 명사와 접속부사를 활용하는 어휘적 방법과 연결어미와 조사를 활용하는 두 가지 문법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말하는 명시화는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재한 선택적 명시화이다.

www.kci.go.kr

(1)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것은 기초과학의 부진 때문이다.[6]
(2a) 따라서 이번 일은 애초부터 없던 일처럼 처리할 수 없다.[7]
(2b)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 수준도 덩달아 높아졌다.
(2c) 그러므로 인구증가율은 경제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2d)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자는 뜻이다.
(3a) 물건이 마침 작아서 안성맞춤이다.
(3b) 성격이 그렇게 게을러 터졌으니까 만날 결과가 안 좋지.
(3c) 개인의 욕구가 크게 분출되므로 계층 간의 이해와 타협이 중요하다.
(3d) 이 학생의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기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3e) 반가운 손님이 오셨기에 버선발로 달려 나가 맞이했다.[8]
(3f) 먼 길을 오느라(고) 힘이 들었겠구나.
(3g) 그 이야기가 뜬소문이라서 다행이다.
(3h) 이미 밥을 많이 먹은지라 음식이 더 들어갈 자리가 없다.
(3i) 강이 깊으매 큰 고기가 살고 덕이 넓으매 인물이 모여드니라.
(4a) 어제는 감기로 학교를 빠졌다.
(4b) 지난 밤 태풍에 거목이 쓰러졌다.

명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위의 (1)과 같은데, 여기서 '때문'은 '~(기) 때문이다' 혹은 '~(기) 때문에' 등의 구문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접속부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위의 (2)와 같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연결어미를 활용하는 방법은 위의 (3)에서 보듯이 상당히 다양하지만, (3g)는 체언어간에 서술격조사가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이므로 (3a)에 포함시킬 수 있고, (3h, 3i)는 현대국어에서 드물게 출현하는 용법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4)에서 보듯이 두 가지이지만, 이들 모두 처소격과 도구격이라는 기본적 기능에서 특수하게 번져 나온 용법이다. 우리는 위 (1), (2), (3), (4) 구문을 관찰 대상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세 가지 <가설>의 성립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

6) 실제 자료 조사에는 이 밖에도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명사 '까닭'과 '소치', '덕분', '탓' 등도 포함할 것이다.
7)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련 구문의 발현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 접속부사의 조사가 필수적이다.
8)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어미 '-을새'도 있다. 다음에 나오는 '-으매'나 '-은지라'와 마찬가지로 의고적으로 드물게 출현하는 관계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www.kci.go.kr

먼저 첫 번째 단계로 5만 어절 규모의 비번역문에 위 (1)~(4) 구문이 어떠한 분포로 나타나는가를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로 동일한 5만 어절 규모의 번역문에 위 (1)~(4) 구문이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가를 조사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절차를 통해, 번역문과 비번역문에서 이들 구문이 보이는 분포의 차이를 조사하여 번역문의 단순화 경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로 위의 번역문에 나타난 이유나 원인 관련 구문이 원문의 어떤 어구에서 번역되었는가를 조사한다. 그리고 만일 선택적 명시화가 일어났다면 그 방향성을 조사해서 <가설 1>의 성립 여부를 검증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별도의 5만 어절 규모 번역문에서 (1)~(4) 구문이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가를 조사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 결과를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번역문들 사이의 상호합치 여부를 관찰하고, 이어서 단순화 경향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가설 2>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9)]

본 연구에서 자료로 활용하는 텍스트의 목록과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텍스트의 유형은 조사 결과 자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문학 텍스트로 한정했다. 아래에서 A는 비번역문 텍스트이고 B와 D는 번역문 텍스트이며, C는 번역문 텍스트 B의 원전이다.

A.『협상 시크릿』박명래 외 지음, 다차원북스, 231쪽, 5만 어절
B.『성과 영혼』김선중 외 옮김, 창해, 171쪽, 5만 어절
C. *Sex and Spirit*, Clifford Bishop, DBP, 171쪽
D.『허브』강영민 옮김, 창해, 171쪽, 5만 어절

3. 조사 결과

3.1 번역문 텍스트의 단순화 경향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텍스트 A를 대상으로 비번역문에 (1)~(3) 구문이 어떠

9) 앞서 언급한 대로 <가설 1>과 <가설 2>의 성립이 입증되면 <가설 3>은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www.kci.go.kr

한 분포로 나타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비번역문 텍스트 A에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구문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10]

(4) '정의' 때문에 실용적 판단을 무시해선 안 된다. (2-1-A-7)
(5a) 따라서 협상의 고수일수록 상대의 'No'를 예상한다. (6-2a-A-73)
(5b) 그래서 고민 끝에 시도해 보는 것이 부동산 재테크다. (6-2b-A-86)
(5c) 그러므로 대부분의 협상이 경쟁적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2c-A-153)
(5d)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가격을 빼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1-2d-A-185)
(6a) 주방이 하도 붐벼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34-3a-A-124)
(6b) 빌려가면 여유 있게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잖아? (2-3b-A-138)
(6c)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다르므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도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8-3c-A-72)
(6d) 정보가 있으면 협상에서 나의 좌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기에 실수의 확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1-3d-A37)
(7a) 애초에 부모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었다. (4-4a-A-83)[11]
(7b) 어느 철도 승강장에서 한 흑인 소녀가 선로 위로 떨어져 달려오던 기차에 양손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3-4b-A-83)

위의 용례를 보면, 이유나 원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명사 '때문'과 접속부사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를 활용한 어휘적 방법(4)와 (5), 각종 연결어미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6a~6d), 조사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7a~7b)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2.2절에 제시된 (1)~(4b)의 용례 가운데 연결어미 '-기로'와 '-느라(고)'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은 비번역문 텍스트 A의 조사 과정에서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위의 용례 (4)~(7b)가 출현한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명사 '때문'과 접속부사를 활용한 어휘적 방법은 각각 129회와 43회 출현했고, 연결어미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은 연결어미 '-서', '-니까', '-므로', '-기에'

10) 앞으로 나오는 용례의 번호는 차례대로 '용례 일련번호-구문 분류기호[1, 2a~3b]-텍스트 분류기호-쪽수'를 표시한다.
11) 조사 '-로' 앞에 명사 '이유'가 결합한 '이유로' 형태는 명사 '때문'을 활용하는 방법의 범주에 넣었다.

www.kci.go.kr

가 각각 22회, 4회, 23회, 2회로 출현했으며, 조사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은 '-로'와 '-에'가 각각 13회와 5회로 출현했다. 출현 횟수를 기준으로 이들 구문의 상대적 분포를 조사해 보면, 총 241회의 출현 빈도에서 명사와 접속부사를 활용한 어휘적 방법이 각각 54%와 18%(11.7%, 4.6%, 1.3%, 0.4%)를 차지했고, 문법적 방법 중에서 연결어미에 의한 방법이 21%(9%, 2%, 9%, 1%)를 차지했으며, 조사에 의한 방법이 7%(5%, 2%)를 각각 차지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비번역문 텍스트의 용례 분포를 번역문 텍스트와 비교하기 위해 번역문 텍스트 B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번역문 텍스트 B에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구문은 다음과 같은 출현 양상을 보였다.

(8) 달의 여신들은 여자들의 월경주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6-1-B-16)
(9a) 따라서 마녀 사냥의 주된 희생자가 여자일 수밖에 없었다. (11-2a-B-93)
(9b) 그래서 모든 인종은 아주 창백한 피부색으로부터 퇴화하고 있다고 추론했다. (12-2b-B-101)
(9c) 그러므로 초월로 가는 메커니즘에는 두 가지가 있다. (8-2c-B-118)
(10a) 시베리아의 추크치족은 그들의 숨결도 불결한 것이어서 남자를 바다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0-3a-B-124)
(10b)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시조이므로 그의 제자들은 모두 실습하기 전에 정신분석을 받았다. (25-3c-B-107)
(11a) 1535년 톨레도에서 이런 짓을 했던 발데마르는 면죄를 거절한 죄로 재판을 받았다. (4-4a-B-91)
(11b) 길가메시는 이슈타르에게 그와 똑같은 운명, 즉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하는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다. (1-4b-B-62)

위의 용례를 보면, 명사 '때문'과 접속부사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를 활용한 어휘적 방법 (8)과 (9), 연결어미 '-서'와 '-므로'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 (10), 조사 '-로'와 '-에'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 (11) 등이 나타나고 있다. 비번역문 텍스트에 대한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결어미 '-기로'와 '-느라(고)'를

www.kci.go.kr

활용한 문법적 방법은 여기서도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위의 용례에서 주목할 것은 접속부사와 연결어미의 목록이 대폭 간소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번역문의 단순화 경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들 어휘(형태)의 분포와 함께 음미할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이를 위해 위의 용례 (8)~(11b)가 출현한 빈도수와 분포를 조사해 보자.

명사 '때문'과 접속부사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등을 활용한 어휘적 방법은 각각 135회와 45회 출현했고, 연결어미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은 연결어미 '-서'와 '-므로'가 각각 13회와 53회 출현했으며, 조사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은 '-로'와 '-에'가 각각 2회와 3회로 출현했다. 출현 횟수를 기준으로 이들 구문의 상대적 분포를 조사해 보면, 총 251회의 출현 용례 중에서 명사와 접속부사를 활용한 어휘적 방법이 각각 54%와 18%(7%, 8%, 3%)를 차지했고, 문법적 방법 중에서 연결어미에 의한 방법이 26%(5%, 21%)를 차지했으며, 조사에 의한 방법이 2%(1%, 1%)를 차지했다. 양 텍스트의 분포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각 5만 어절인 비번역문 텍스트 A와 번역문 텍스트 B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간략한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명사와 접속부사 활용

	명사	접속부사			
	'때문'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비번역문A	54%	11.7%	4.6%	1.3%	0.4%
번역문B	54%	7%	8%	3%	0

〈도표 2〉 연결어미 활용

	연결어미			
	'-서'	'-니까'	'-므로'	'-기에'
비번역문A	9%	2%	9%	1%
번역문B	5%	0	21%	0

www.kci.go.kr

〈도표 3〉 조사 활용

	조사	
	'-로'	'-에'
비번역문A	5%	2%
번역문B	1%	1%

위의 세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번역문에 비해서 번역문에 어휘(형태)의 다양성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도표 1>을 보면 번역문 텍스트에서 접속부사 범주에 '그러니까'가 보이지 않고, <도표 2>를 보면 연결어미 가운데 '-니까'와 '-기에'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를 유발한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번역문의 연결어미 활용 중에서 '-므로' 형태의 급증(9%→21%)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세 도표에 근거해, 우리는 번역문 텍스트에서 고빈도 형태의 출현 비율 증가에 의한 단순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번역문 텍스트 B를 그 원문 텍스트 C와 대조하여 번역문에 나타나는 형태들에 상응하는 원문 형태들을 조사하기로 한다. 이는 앞서 2.2절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화 경향의 원인을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작업인 동시에 명시화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3.2 명시화의 방향성

우리는 번역문 텍스트에서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형태로 나타난 총 251개의 어휘(형태)들이 원문 텍스트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조사해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조사 대상이 된 것은 번역문 텍스트 B에 나타난 8개 항목(명사 '때문', 접속부사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연결어미 '-서', '-므로' 및 조사 '-로', '-에' 등) 전부이다.

우선 번역문 텍스트 B에서 총 135회 출현한 '때문'은 그 원문 C에서 모두 20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 상위 3개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12T) 반면에 세베이족 역시 기수족을 야만인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의식을 통해 성인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www.kci.go.kr

다. (20-1-B-39)
(12S) The Sebei describe the Gisu as the barbarians, because to them it is obvious that males and females must both be ritually introduced to their adult sexual roles.

(13T) 처녀성에 대해 통찰하거나 여러 문화를 놓고 비교 서술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처녀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11-1-B-23)
(13S) Historical and cross-cultural accounts of virginity are complicated by problems of translation. Not everyone has the same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virgin.

(14T) 그러나 브라만은 그들로부터 물을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데바다시는 계급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14-1-B-27)
(14S) Yet the *bramins* are forbidden to take water from them, for as *devadasis* they are without caste.

위 (12)는 번역문의 '때문'과 원문의 접속사 because가 상응하는 용례인데, 모두 54회 출현해서 4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13)은 번역문의 '때문'에 상응하는 어구가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이른바 영형태(zero form)의 번역인데 모두 42회 출현하여 31%의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14)는 번역문의 '때문'과 원문의 접속사 for가 상응하는 용례인데, 모두 7회 출현하여 5%의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 17가지는 1~4회 출현해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12]

다음으로 3개의 접속부사를 활용한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번역문 텍스트 B에서 총 17회 출현한 '따라서'는 그 원문 C에서 모두 9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 상위 3개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15T) 그는 쾌락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천성뿐 아니라 대자연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믿었으며, 따라서 즐거움을 주는 모든 행위는 자연스럽고 옳아야 한다고 여겼다. (13-2a-B-117)
(15S) He believed that pleasure a sign that people were acting in

12) so, as, due to, since, owing to, since, and, from, by, on grounds 등이 나타났으며, 무생물 주어 구문의 번역에서도 나타났다.

www.kci.go.kr

accordance not just with their own natures, but with the Nature. Therefore all acts that give pleasure must be natural and right.

(16T) 악령이 신부를 독차지하려 (.....)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악한 힘은 신이나 사제, 권력자들이 상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3-2a-B-22)
(16S) An evil spirit (.....) is determined to have her for itself. Such malign forces are best confronted by a god, priest or man of power.

(17T) 잠비아의 일라족을 비롯한 수많은 아프리카 부족들 역시 남성도 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라족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8-2a-B-43)
(17S) Male pregnancy is also considered possible aomng a number of African peoples, such as the Ila of Zambia, who, as a consequence, outlaw homosexuality.

위 (15)는 번역문의 '따라서'와 원문의 접속사 therefore가 상응하는 용례인데, 모두 4회 출현했다.[13] 그리고 (16)은 번역문의 '따라서'와 상응하는 어구가 원문에 나타나지 영형태(zero form)의 번역으로 모두 3회 출현했다. 마지막으로 (17)은 번역문의 '따라서'와 원문의 전치사구 as a consequence of가 상응하는 용례인데, 모두 3회 출현했다. 나머지 6가지는 1회씩 출현했다.[14]

번역문 텍스트 B에서 총 18회 출현한 '그래서'는 그 원문 C에서 모두 9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상위 3개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18T) 이 같은 매력 때문에 게부시족 남자들은 이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래서 성인 남자의 약 15%가 영매이다. (9-2b-B-59)
(18S) Because of such attractions, the role is eagerly embraced by Gebusi men, and mediums make up some fifteen per cent of the adult male population

13) 표본의 수효가 많지 않은 관계로 비율은 우리의 논의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비율 표시를 생략한다.
14) nevertheless, thus, because, as a result, accordingly 등이 나타났다.

www.kci.go.kr

(19T) 그래서 눔무는 두 사람이 성교하는 그림 위에 최초의 인간들을 눕혀 놓아 이들에게 혼을 넣어 주었다. (4-2b-B-32)
(19S) So the Nummu gave the first humans their souls by having them lie on a drawing of two figures copulating.

(20T) 그들은 솜씨 좋은 의사이고 사랑의 마술에 정통했으며, 여성의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그래서 플레인족은 솜씨 좋은 부인을 칭찬할 때면 '아내는 구슬 장식을 베르다체만큼이나 곱게 만든다'라고 말하곤 했다. (7-2b-B-52)
(20S) They were believed to be skilled doctors and experts in love magic, and to perform women's work so well that a typical Plains compliment to a skillful wife would be that "she does beadwork as fine as a berdache".

위 (18)은 번역문의 '그래서'와 원문의 접속사 and가 상응하는 용례인데, 모두 5회 출현했다.[15] 그리고 (19)는 번역문의 '그래서'와 원문의 접속사 so가 상응하는 용례인데 모두 3회 출현했다. 마지막으로 (20)은 번역문의 '그래서'와 원문의 어구 so ~that가 상응하는 용례인데, 모두 3회 출현했다. 나머지 6가지는 1~2회씩 출현했다.[16]

번역문 텍스트 B에서 총 9회 출현한 '그러므로'는 그 원문 C에서 모두 4가지로 나타났는데, 접속사 therefore만 4회 나타났고 나머지 3가지[17]는 1회씩 나타났다.

(21T) 그러므로 이것은 생물학적이나 도덕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였다. (6-2c-B-103)
(21S) It was therefore seen as biologically and morally good.

위 (21)은 번역문의 '그러므로'와 원문의 접속사 therefore가 상응하는 용례인데, 모두 4회 출현했다.[18]

다음으로 2개의 연결어미를 활용한 구문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번역문 텍

15) 역시 표본의 수효가 많지 않아서 비율 표시는 생략한다.
16) so that, and, as, and so, thus, for example, from 등이 나타났다.
17) thus, and 등과 문장부호를 번역한 용례가 나타났다.
18) 역시 표본의 수효가 많지 않아서 비율 표시는 생략한다.

www.kci.go.kr

스트 B에서 총 12회 출현한 '-서'는 그 원문 C에서 모두 7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 상위 2개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22T) 그리스의 신 제우스는 특히 인간 여자를 몹시 좋아해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쫓아다녔다. (6-3a-B-62)
(22S) The Greek god Zeus was especially partial to human women and adopted a bewildering variety of forms to pursue them.

(23T) 도교에서는 남자의 양기는 흥분하기 쉽고 재빨리 소모되어 버리는 불과 같고, 여자의 음기는 광대한 바다의 물과 같아서 서서히 움직이지만 무진장하다고 본다. (12-3a-B-140)
(23S) For the Taoist, man's yang force is like fire – volatile and quickly spent- while the yin of woman is like the water of a vast sea, slow to move, but inexhaustible.

위 (22)는 번역문의 '-서'와 원문의 접속사 and가 상응하는 용례인데, 모두 4회 출현했다. 그리고 (23)은 번역문의 '-서'에 상응하는 어구가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 영형태(zero form)의 번역으로 모두 3회 출현했다. 나머지 5가지는 각각 1회씩 출현했다.[19]

다음에 번역문 텍스트 B에서 총 53회 출현한 '-므로'는 그 원문 C에서 모두 12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 상위 2개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24T) 이와 같이 사냥감에서 사냥꾼에게로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은 생명 에너지가 유한한 데 비해 영혼들은 많으므로 생명 에너지는 끊임없이 순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3c-B-13)
(24S) This manifest flow of life from the hunted to the hunter suggests that there is a limited supply of life energy – there are only so many souls, endlessly recycled.

(25T) 남편은 이러한 조롱에 대해서 베르다체가 바람직한 부인이므로 다들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자위했다. (13-3c-B-52)
(25S) The husband consoled himself that the mockery was fuelled by

19) because, by, and so, with 등이 나타났다.

www.kci.go.kr

envy because the berdache was considered to be such a desirable wife.

위 (24)는 번역문의 '-므로'에 상응하는 어구가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 영형태(zero form)의 번역으로 모두 20회 출현하여 38%의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25)는 번역문의 '-므로'와 원문의 접속사 because가 상응하는 용례인데, 모두 9회 출현하여 17%의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 10가지 중에서 접속사 since와 so가 각각 4회(7.5%) 출현하고, 나머지는 1~3회씩 출현했다.[20]

끝으로 조사를 활용한 구문은 번역문의 '-로'가 원문에서 전치사 with와 for와 상응했고, '-에'가 원문에서 전치사 by와 상응했다. 전체 표본 수 자체가 2개와 3개로 많지 않아 구체적인 용례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제 (12)~(25)에 걸쳐 다소 장황하게 서술한 번역문과 원문의 대조에 대해 그 의미를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위의 용례 (13), (16), (23), (24) 등에 나타난 영형태의 번역 양상이다. 이들 용례에서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구문 형태는 원문에 상응하는 어구가 없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자가 해당 형태를 사용한 것이므로 명시화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선택적 명시화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그 비율이 두드러진 것은 (13)과 (24)의 경우로 명사 '때문'과 연결어미 '-므로'의 번역에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앞서 3.1절의 <도표 1>과 <도표 2>의 번역문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던 두 가지 형태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번역문의 고빈도 어휘(형태)의 출현과 명시화가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번역문의 선택적 명시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난 어휘(형태)가 번역문에서 상위 첫 번째와 두 번째 출현 비율을 보이는 고빈도 어휘(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명시화의 방향성과 고빈도 어휘(형태)의 출현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앞서 3.1절에서 우리는 고빈도 어휘(형태)의 출현이 번역문의 단순화 경향을 촉발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설 1>, 즉 "번역문은 비번역문과 비교해서 어휘의 단순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명시화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가 참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20) therefore, thus, for, and, as 등이 나타났다.

www.kci.go.kr

3.3 번역문들의 상호합치 경향

번역문들의 상호합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5만 어절 규모의 새로운 번역문 텍스트 D에서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구문이 어떤 분포를 보이면서 출현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앞서 비번역문 텍스트 A와 번역문 텍스트 B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각각 비교하여 번역문들이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우리는 번역문 텍스트 D를 대상으로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구문의 분포를 조사해서 이 결과를 비번역문 텍스트 A 및 번역문 텍스트 B와 비교해 보았다. 번역문 텍스트 D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6) 식물이 약용으로 쓰이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몸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1-D-7)
(27a) 따라서 그것은 요결석과 요담석을 없애기 위해, 또는 경련을 일으키는 염증성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다. (7-2a-D-36)
(27b) 그래서 아유르베다의 치료법은 각 지역의 신앙이나 전통에 따라 수정되고 동화되었다. (5-2b-D-78)
(27c) 그러므로 자격 풀들은 절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 (1-2c-D-6)
(28a) 일반인들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들 궁정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30-3a-D-110)
(28b) 이들의 에너지는 몸의 상체 부분에서 생겨나므로 하체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24-3c-D-78)
(29a) 특히 내분비선 장애로 빚어지는 소화기 계통의 질환에 효과적이다. (6-4a-D-42)
(29b)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지르는 날카로운 소리에 귀가 먹거나 미칠 수도 있다고 믿었다. (1-4b-D-11)

위의 용례를 보면, 명사 '때문'과 접속부사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를 활용한 어휘적 방법 (26)과 (27), 연결어미 '-서'와 '-므로'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 (28), 조사 '-로'와 '-에'를 활용한 문법적 방법 (29)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출현 비율을 알아보자.

출현 횟수를 기준으로 이들 구문의 상대적 분포를 조사해 보면, 총 254회의 출현 용례 중에서 명사와 접속부사를 활용한 어휘적 방법이 각각 56%(142/254)

www.kci.go.kr

와 7.0%(3.9%[10/254], 2.7%[7/254], 0.4%[1/254])를 차지했고, 문법적 방법 중에서 연결어미에 의한 방법이 29.9%(14.2%[36/254], 15.7%[40/254])를 차지했으며, 조사에 의한 방법이 7.0%(5.5%[14/254], 4%[4/254])를 차지했다. 텍스트들 사이의 분포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비번역문 텍스트 A와 번역문 텍스트 D 및 번역문 B와 D에 대한 조사 결과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4〉 명사와 접속부사 활용

	명사	접속부사			
	'때문'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비번역문 A	54%	11.7%	4.6%	1.3%	0.4%
번역문 D	56%	3.9%	2.7%	0.4%	0

〈도표 5〉 연결어미 활용

	연결어미			
	'-서'	'-니까'	'-므로'	'-기에'
비번역문 A	9%	2%	9%	1%
번역문 D	14.2%	0	15.7%	0

〈도표 6〉 조사 활용

	조사	
	'-로'	'-에'
비번역문 A	5%	2%
번역문 D	5.5%	1.5%

위의 <도표 4~6>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번역문 A에 비해서 번역문 D에 어휘(형태)의 다양성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도표 4>를 보면 번역문 텍스트에서 접속부사 범주에 '그러니까'가 보이지 않고, <도표 5>를 보면 연결어미 가운데 '-니까'와 '-기에'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번역문 텍스트 D의 단순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www.kci.go.kr

그렇다면 본 3.3절의 조사 목표인 번역문들 사이의 상호합치 여부는 어떨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3.1절에서 얻은 번역문 텍스트 B에 대한 조사 결과를 번역문 텍스트 D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위와 유사한 도표로 만들어보기로 한다.

〈도표 7〉 명사와 접속부사 활용

	명사	접속부사			
	'때문'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번역문 B	54%	6.7%	7.5%	3.5%	0
번역문 D	56%	3.9%	2.7%	0.4%	0

〈도표 8〉 연결어미 활용

	연결어미			
	'-서'	'-니까'	'-므로'	'-기에'
번역문 B	5%	0	21%	0
번역문 D	14.2%	0	15.7%	0

〈도표 9〉 조사 활용

	조사	
	'-로'	'-에'
번역문 B	1%	1%
번역문 D	5.5%	1.5%

위의 <도표 7~9>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양쪽 텍스트에 출현하는 어휘(형태)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의 <도표 4~6>과 대조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21] 그렇다면 우리는 <도표 7~9>에서 번역문들끼리의 상호합치

21) 다만 구체적인 분포 수치에서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쉽다. 그러나 그것은 본고에서 다룬 표본의 수가 5만 어절로 비교적 적은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본의 수효가 적절히 확보되면 번역문들 사이에서 분포

www.kci.go.kr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도표 1~3> 및 <도표 4~6>의 도움을 받아 그 원인을 단순화로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설 2>, 즉 "번역문들 상호 간에는 어휘적 분포가 유사한 상호합치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단순화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가 참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가설 1>과 <가설 2>가 성립했으므로 논리적 연관 관계에 따라 <가설 3>도 참이다.

4. 맺음말 - 요약과 한계

우리는 지금까지 번역 보편소들의 상호 의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 계량화의 도움을 받아 다음 세 가지 <가설>의 성립 여부를 논의했다.

<가설 1> 번역문은 비번역문과 비교해서 어휘의 단순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명시화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가설 2> 번역문들 상호 간에는 어휘적 분포가 유사한 상호합치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단순화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가설 3> 단순화를 매개로 하면 명시화와 상호합치 경향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세 가설의 성립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5만 어절 규모의 비번역문 텍스트와 역시 각각 5만 어절 규모의 번역문 텍스트 2종 및 원문 텍스트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5만 어절 규모의 비번역문에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이 어떠한 분포로 출현하는가를 조사하고, 이 분포를 동일한 규모의 번역문에서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번역문에 나타나는 어휘(형태) 종류의 다양성 제약 현상, 즉 번역문의 단순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어서 번역

와 관련된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문에 나타난 이유나 원인 관련 구문이 원문의 어떤 어구에서 번역되었는가를 조사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번역문의 명시화 경향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적 명시화가 고빈도 어휘(형태) 쪽으로 발생했다는 방향성에 근거하여 단순화와 명시화의 관계를 가리키는 <가설 1>이 참으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동일 규모 번역문 텍스트(D)에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구문이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가를 조사하여, 이를 앞서 비번역문(A)과 번역문(B)에 대해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다. 새로운 번역문 텍스트 D의 조사 결과는 어휘(형태)의 종류에 있어서 번역문 텍스트B와 유사했으며 비번역문 텍스트 A와는 분명히 구분되었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는 번역문들의 상호합치 경향과 단순화의 관계를 가리키는 <가설 2>가 참으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한편 위의 두 가설이 성립되면 논리적인 연관관계에 의하여 <가설 3>은 자동적으로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단순화와 명시화, 상호합치 등의 번역 보편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조사에 활용한 말뭉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관계로 현재의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경향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며, 따라서 보다 확실한 가설의 검증은 정밀하게 설계된 대규모 코퍼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일의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김순영 (2005)「Evidence of Explicitation in Texts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 A Corpus-based Pilot Study」,『번역학연구』6(1): 143-166.

김정우 (2011)「한국어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성」,『번역학연구』12(1): 75-122.

김정우 (2013)「코퍼스기반 번역학 연구에서 정량적 인자가 정성적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번역학연구』14(1): 31-98.

김혜영 (2009)『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휘논문.

남원준 (2012)「코퍼스를 활용한 번역연구에 관한 담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통번역교육연구』10(1): 147-172.

www.kci.go.kr

안동환 옮김 (2008)『코퍼스기반 번역학』서울: 동인. [Sara Lavios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Radopi]

이영훈 외 (2010)「비교코퍼스에 기반한 불한번역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연구」,『번역학연구』11(1): 161-190.

정호정 (2003a)「코퍼스 중심의 번역학 연구」,『번역학연구』4(2): 71-88.

조의연 (2009)「병렬 말뭉치에 기반한 번역학 연구」,『번역학연구』10(2): 207-246.

조재범 (2008)「코퍼스를 통한 After all의 용례 분석 및 번역 교육에의 적용」,『통번역교육연구』6(1): 5-17.

조준형 (2012)「병렬코퍼스에서의 맥락 탐색의 의미와 한계」,『번역학연구』13(5): 223-246.

www.kci.go.kr

[Abstract]

The Interdependencies of Translation Universals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aity)

This research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interdependencies of translation universals; simplification, explicitation and convergence by the method using a small size of corpus which contains roughly fifty thousand words of two English-Korean translation texts, non-translated text (original Korean text) and original English text. In order to examine their interdependencies from these texts, the hypotheses propose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Hypothesis 1: Translated texts show simplification trend, compared with non-translated text in aspect of explicitation.
Hypothesis 2: Translated texts show convergence trend with similar kinds of lexical morphemes in terms of simplification.
Hypothesis 3: Explicitation and convergence are proportional in aspect of parameter of simplification.

Comparing distributions of Korean morphemes expressing cause or reason in the translated texts with that in the non-translated text, the translated texts include the restricted lexical items showing simplification trend. And investigating the lexical items in the Korean translation texts from the original English text, selective explicitation is observed in the translated text. The selective explicitation frequently occurs in high frequency lexicon, and this shows that Hypothesis 1 must be true. Lastly, looking into distributions to each other's relevant lexicon between the two texts translated into Korean, the translated texts show the similar distribution phenomena and are different from

www.kci.go.kr

the non-translated text. It indicates that Hypothesis 2 is true.

Through these investigations and analyses, we can infer that Hypothesis 3 is true if Hypothesis 1 and 2 are true.

▸ Key Words: convergence, corpus, explicitation, simplification, translation universals

김정우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kjwn@kyungnam.ac.kr
관심분야: 번역사, 번역 이론

논문투고일: 2016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9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6일

www.kci.go.kr